

국내 자생식물에 '항암성분' 많다

생약학회 월례회서 배기환 교수 발표

담배풀·도둑놈의 지팡이·골무꽃·벌개미취 등 한국에 자생하는 독특한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약대 배기환 교수는 지난 16일 한국신약연구소에서 열린 생약학회 월례세미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배기환교수는 '한국산 약용식물의 항암활성성분'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담배풀에서 9가지 활성물질들을 분리, 이 가운데 텔레킨(telekin)이라는 물질은 수종의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이 강했으며 암세포전이에 큰 역할을 하는 신생혈관생성(안지오제네시스)을 저지하려는 작용이 뚜렷했다고 발표했다.

또 도둑놈의 지팡이에서도 지금까지 보고된 플라보노이드보다 활성이 강한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소프라플라비논-G를 분리해 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한 결과 백혈병세포에 대해 5-FU보다 강한세포 독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밖의 골무꽃에서는 항암활성물질인, 벌개미취 뿌리에서는 세포독성이 강한 폴리아세틸렌계 물질을 분리하여 항암활성시험을 진행중이라고 보고했다.

배교수는 "한국 약용식물 중 항암효능이 있는 물질을 분리, 항암제로서의 개발가능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생화학연구자간의 교류와 제약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뒷받침될 때 이 같은 연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약대 김동현 교수는 '생약성분의 장내 미생물대사와 생리활성의 변화'를 통해 거의 모든 생약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와 글리치리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김교수는 플라보노이드는 장내세균에 의해 촉매될 때 혈소판 응집억제효과와 암세포에 대한 독성효과가 우수했고 특히 Streptococcus LJ-22균주에 의해 촉매된 글리치리산대사체는 고감미효과가 있는 차세대 감미료 생산에 까지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삼 발기부전 치료에 '탁월' 국제인삼심포지엄서 발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가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인삼'이 발기부전 치료에 탁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 병원 최형기교수(비뇨기과)는 최근 열린 제7회 국제인삼심포지엄에 발표한 논문에서 "발기부전환자가 고려홍삼(인삼)을 매일 1.8g씩 3개월간 복용한 결과 발기력·성욕·성적만족도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고려홍삼을 복용한 환자 18명과 위약을 복용한 10명을 대상으로 발기 기능과 혈장 내 남성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고려홍삼을 복용한 환자 가운데 72.2%가 주관적으로 '개선됐다'고 답했고 검사 결과도 66.7%가 실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껍질 가공 건강식품으로" 과기원 변성해 박사 제안

감귤껍질을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으로 가공, 제주 감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제주농협지역본부에서 열린 감귤관련 세미나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변성해 박사는 "감귤껍질에는 고혈압·동맥경화증·간장질환·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물질이 들어있다"며 이를 의약품이나 건

강식품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변박사는 또 "덜익은 감귤껍질에는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물질이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의 상품화 가능성이 높다"며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감귤껍질을 이용한 의약품 및 건강식품 생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간안내 ●

'한국본초도감' 약효성분과 약리작용 임상실험 결과까지 이해하기 쉽게 수록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약초를 집대성한 '한국본초도감'이 출간됐다. 한약 1003종의 해설과 이에 속한 약용식물 총 1600여종을 수록한 이 책은 경희대 안덕균교수(한의대 본초학)가 지난 30여년간 전국 각지의 산과 들을 수십차례 순회채집하면서 직접 촬영한 2600여매의 약용식물 사진과 함께 각각의 약물에 적중하는 효능 및 과학적으로 연구된 약효성분과 약리작용, 그리고 최근까지 입원환자를 치료한 임상실험 결과를 알기 쉽게 상술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나라와 지방에 따라서 다른 한약의 명칭을 통일성있게 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약재라도 임상 의가(臨床醫家)에서 많이 활용하고 그 효능이 우수한 중국자생약초와 약재를 선별 수록함으로써 임상응용에 편리하도록 했다.

안덕균 교수는 "이 책이 식물도감이 아닌

본초도감임을 감안하여 식물학적인 분류나 생태 설명은 생략하고 약으로 쓰이는 부위와 명칭 위주로 약효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 책은 또 수재된 약물 중 긴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사진 및 효능 연구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독이 있는 약물은 기미와 주의사항 및 해설하단에 유독성을 표시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부록편에는 한약과 약초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약의 기미 △한약 달이는 법 △한약복용법 △한약재의 채취와 보관 법 △식물용어 도해 △한약명 찾아보기 △식물학명 찾아보기 △참고문헌 등을 실었다.

□판형/4×6배판/면수 856 쪽/정가 150,000원/교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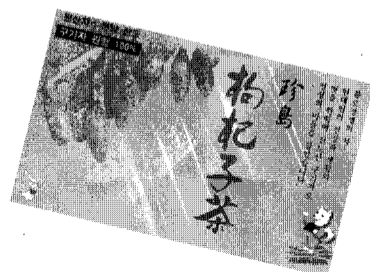
□저자/ 안덕균 교수(경희대학교 한의대 본초학 교실)

□저서/현대본초학, 한약포제학, 신동의보감등 다수



진도구기자차

불로장생의 차 ~
현대인의 건강과 생활의 맛을 위하여
진도산 구기자로 정성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진도구기자차가 좋은 이유

- 구기자를 차나 음용수로 개발하여 장기 상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정기간 장기 복용할 때 구기자의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 끓일시 맛과 향이 잘 우러나도록 특수 제조하여 구기자 특유의 맛과 향을 느낄수 있습니다.
- 다른 첨가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순수 구기자만으로 만들어 장기 복용해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며 오히려 해묵은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기자 원형 100% 티백소분 포장되어 있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한방식품입니다.

사용용도

차, 음용수, 병원식, 스프, 구기자 주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기자 음용수

6g티백 1포를 물 3l에 넣고 센불을 가하여 끓인 후 약한 불로 우러나오도록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음용하시면 입안의 개운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구기자 차

6g티백 1포를 물 0.5l에 넣고 센불을 가하여 끓인 후 약한 불로 졸여 차 3잔이 되게 하여 구기자의 맛과 향을 느끼세요.